

심장과 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새 생명의 답은 이 책에 있다.

“다음 시대 최고의 산업은 한의학이 될 것입니다”

현대 서양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의 근원을 뿌리뽑을 수 있어

폐 기능 좋아지면 편도가 저절로 좋아져 수많은 병 치료·예방



아토피, 비염, 천식 치료 권위자 서효석 편강한의원 원장

서효석 편강한의원장은 “이제껏 화공약품(chemical medicine)이 세계시장을 장악했으나, 이제 건강기능식품(medical food) 시장이 열린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으므로 자동차, 핸드폰, 비행기보다도 메디컬 푸드의 시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좋은 건강식품을 먹고 면역력이 향상되어 많은 병이 개선, 완치의 축복을 얻으면 세계인들은 병이 나면 더 이상 화공약품을 찾지 않고 메디컬 푸드를 찾을 것이다. 서양의학에 없는 한의학(韓醫學)의 특화된 효능을 담은 메디컬 푸드를 갖고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류의 다음 차레는 한의학입니다.” 서효석(68) 편강한의원 원장의 어조엔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서 원장은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우수성에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면서 “세계화 준비는 끝났다. 이제 하나하나 인정받아가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 ‘편강’의 뜻이 무엇인가요.

“한자로 扁康(편강)이라고 씁니다. 편도선이 건강해야 모든 게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폐 건강입니다. 폐 기능이 좋아지면 편도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건강해진 편도는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예방해요. 일반인들은 편도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건강의 핵심은 편도에 있습니다. 편도가 건강할 때 림프구가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비염, 천식에 걸리지 않고 감기의 재발도 방지할 수 있죠.”

-아토피, 비염, 천식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편도가 약해 어릴 적 편도염을 천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율챙이 한의사 시절 편도선 치료 하러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같은 의료인으로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후 여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비염과 천식, 아토피의 뿌리가 같다는 걸 알게 됐죠.”

-서양의학이 따라올 수 없는 한의학만의 우수성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서양의학은 대증(對症)치료에 그쳐요. 병의 원인이 아닌 증상만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치료가 기본이죠. 이에 반해 한의학은 병의 근본을 치료합니다. 양약은 혈압약, 당뇨약 등 평생 치료하는 약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근본은 남아 있어요. 한의학은 병의 뿌리를 뽑아 어떤 약도 먹지 않아도 되는 근본 치료를 지향합니다.”

한의학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뜨거워요. 베트남 세미나의 성과가 널리 전해져 인도에서도 방문 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어요. 우리 한의원만 해도 지난해 다녀간 중국인 환자가 300여 명에 이르고 올해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3,000명이 올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한의학의 세계화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논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의학은 논문으로 모든 걸 뒷받침합니다. 약의 효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논문

만능 시대에 이뤄내지 못한 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정리로써 치료 원리를 새로이 개발하여 인류 건강에 실제적이고 실익적인 치료 효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제껏 200명 이상의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나왔지만 비염, 천식, 아토피는 여전히 불치병이고,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는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감기, 스트레스,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서 출발해 이를 다시 물어 새로운 질병 치료의 영역을 개척해 왔습니다.

-상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치료 영역이란 무엇입니까.

누구나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앓는 감기를 예로 들면, 감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감기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는 코, 기관지, 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에 폐가 있습니다. 감기가 제때 치료되지 못하면 코감기, 목감기, 기관지염을 거쳐 폐렴으로 깊어지는데, 결국 만병의 뿌리인 폐 기능 약화가 감기의 원인입니다. 흡연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폐를 더럽히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으로 수많은 병을 불러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도 알고 보면 폐에 열이 쌓인 것입니다. 폐에 열이 차곡차곡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혈중 코르티솔(cortisol) 농도가 증가합니다. 결국 폐 기능 약화로 수많은 병이 일어나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법도 간단합니다. 바로, 폐 청소. 폐에 좋은 10여가지 약재를 황금비율로 조합한 편강환으로 폐를 깨끗이 청소해주면 폐활량이 높아지고, 폐 기능이 활발해지면 내 몸 최대의 임파선인 편도가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진 편도가 내 몸의 모든 임파선을 살려내면 내 몸은 최상의 면역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력이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포 곳곳에 쌓인 적열을 씻어낸 활력 넘치는 폐는 감기를 예방하고, 비염, 천식의 뿌리를 뽑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상식을 넘어 새로운 원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상식으로 저는 비염 5만, 아토피 4만, 천식 3만 3천 명의 완치자를 탄생시켰고, 중증의 폐질환도 폐기종 만 명, 폐섬유화 만 명, 기관지 확장증 1만 2천 명의 치료자가 현재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치료사례를 통해 저는 이러한 질병들이 얼마나 잘 고쳐지는 병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 얼마 전 미국 어린이들에게 호흡기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제까지 서양의학은 병에 걸리면 뿌리는 못 뽑고 화공약품으로 진통, 진정, 항생, 소염을 통해 그때그때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에만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좋아졌다가도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아까 언급한대로 약이 내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를 고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장육부의 중심인 폐

기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폐 기능이 강화되면 면역 식별 능력이 좋아져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거뜬히 물리쳐 근본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폐는 값비싼 고가의 약보다 '청소'를 좋아합니다. 편강환으로 폐를 깨끗이 청소하면 활발해진 폐 기능이 내 몸 최고의 임파선인 편도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임파구를 활성화시켜 그 결과 훌륭한 면역력이 수많은 병을 근본적으로 다스립니다. 최근 미국을 강타한 호흡기질환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일수록 고열이 위험합니다. 튼튼 편도만이 고열을 막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엔테로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편강환은 폐에 좋은 10여 가지 약재를 황금비율로 조합해 제조한다.

- 미국의 폐질환 환자가 얼마나 되고,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미국 인구 3억 명 중 1억 명이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과 기타의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감기 예방차원에서 3억 명 모두 잠재적 치료 인구로 볼 수 있겠지요. 편강환을 꾸준히 복용해 편도가 튼튼해지면 감기나 기타 알레르기 증상이 환절기를 당해 발현해도 가볍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의 경우 더 빠른 치료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의 차이일 것으로 이해합니다. 올 7월 제가 18개국 주한대사 및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 후 편강환을 한 달 분씩 드렸는데, 최근 주한 앙골라 대사의 아들의 경우 천식은 기본 4달 복용해야 하나, 한달 먹고 벌써 반쯤 치료된 성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 보통 미국에서는 한의학이라 하면 중의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중의학과 차별성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중의학은 음양오행 이론에 바탕을 두고 수천 년간 변함없는 모습이었으나, 저는 오장 중 폐가 으뜸이며 '폐 청소'라는 단순한 치료 원리를 개발하여 아토피, 비염, 천식은 물론,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마저도 만 명 단위의 치료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중의학과는 차별이 되고, 당연히 기존 한의학과도 다릅니다. 바탕은 중의학과 한의학에 두었으되, 그 모습은 활짝 핀 꽃의

모습입니다. 미국 중증 폐질환자는 3억 인구 중 약 3%인 천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중증 폐질환을 영구적 병변으로 보고 현상유지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만 3만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1년 6개월 정도 편강환을 꾸준히 복용하며 유산소 운동에 힘쓰면 중증 폐질환 환자도 매우 호전된 것을 C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도 건강 두 달로써 더 이상 감기를 허용하지 않고, 폐렴을 철저히 이겨낼 수 있고, 폐렴에 걸리지 않으면 죽음으로부터 안도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연후에도 꾸준히 열 감기가 오지 못하도록 유지, 관리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혈색이 좋아지면서 한층 건강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의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병 치료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보다 발전하려면 난치병 치료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유일한 출구예요.”

-어떤 때 보람을 느끼십니까.

“환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죠.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300일 이상을 사무실에 나올 수 없죠. 저는 모든 걸 100세 건강시대에 걸었어요. 현재 100세 생존율이 2만명 중 1명꼴인데 보다 많은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시대를 보고 싶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현대인 체질에 맞는 한의학 이론 정립 외길

서효석 원장 누구인가

서효석 원장은 한의사 생활의 전부를 아토피,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과 폐 질환 연구 외길에 바쳤다. 그 세월이 무려 42년이다. 서 원장은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 날’ 쉬는 법이 없다. 주 5일 근무제로 사실상 휴일이 된 토요일에도 오후 6시 30분까지 환자를 돌본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토피, 비염, 천식이 폐 기능 약화에서 비롯된, 뿌리가 같은 병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의 명성은 해외에서도 통한다. 2008년 일본 오사카에 아토피한약연구소가 설립됐고,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등 미국에서도 서 원장의 치료법을 적용하는 한방병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 진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서 원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 공로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에는 미국 상, 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